



시설과 사람들 2017 Vol. 76

부산시설공단과 시민이 함께하는
행복도시만들기
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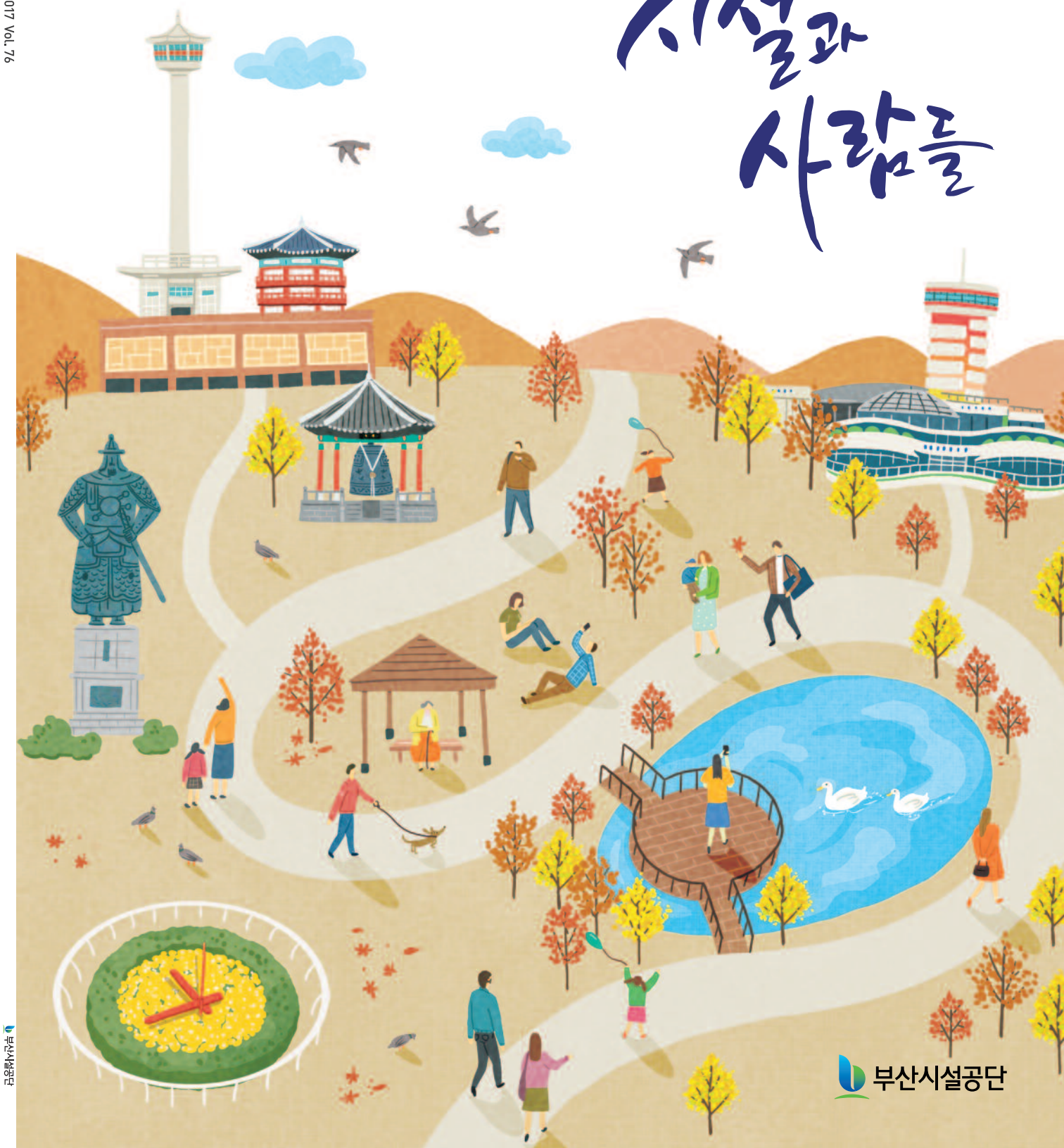
공원·교통·상가·장사·체육시설에서 부산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만들어갑니다.

부산시설공단

» 여행하는 기분으로 떠나는 도심속 공원 이야기
용두산공원 | 어린이대공원

시설과 사람들

2017 Vol. 76



부산시설공단



따뜻한 차 향기가
기분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살랑거리는 바람에
바스락 낙엽소리 들려오니
흐르는 시간이 아쉽기만 합니다.

뒤돌아보면 붙잡고 싶은 순간이 될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과 이 계절을
오롯이 담아내길 바랍니다.

CONTENTS



11



18



28



35

발행인 김영수
발행처 부산시설공단 T.1670-8114
홈페이지 www.bisco.or.kr
디자인/인쇄 디자인글꼴 T.051-636-1215

시설과 사람들
2017 VOL.76

04 Special

- 04 생각의 향기
- 06 부산시설공단과 함께한 가을축제
 - 부산시민공원 열린콘서트 / 가을소풍음악회
 - 아트공방페스티벌 / 정원박람회
 - 원아시아페스티벌 플래시몹 이벤트
 - 부산불꽃축제 & 광안대교

18 Culture

- 18 줌 인 부산 아름다운 숲, 어린이대공원
- 20 줌 인 부산 인포그래픽 ③ 지하도상가
- 22 포커스 인 부산 꼬미와 꾸미가 함께한 '제2회 부산정책박람회'
- 24 포커스 인 부산 SNS로 보는 부산시설공단

27 Life

- 27 인물의 창 QR코드 아이디어맨 '조용훈'
- 28 테마의 창 2017 부산국제핸드볼대회
- 30 테마의 창 2017 전국체전 핸드볼경기

32 News

- 32 공단뉴스
- 36 부산뉴스
- 38 부산시설공단 관리시설 MAP
- 40 공익캠페인

가을이, 무르익는 시민공원

가을이면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다거나 금전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쉽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가까운 부산시민공원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지. 이곳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우리 땅이면서도 우리나라 사람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이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 경마장을 시작으로 태평양전쟁 때는 일본군 병참경비대와 포로수용소 그리고 해방 후에는 미군 하야리아부대가 주둔하던 곳이다.

이젠 온전히 우리 곁으로 돌아온 땅, 시민의 염원을 모아 만든 부산시민공원. 부산시민공원은 다른 공원과 달리 문화와 예술이 접목되어 있다. 문화와 예술이 시민들의 일상이 되고, 이를 통하여 시민들이 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항상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공원 안에 문화예술촌이 있는데, 이곳에는 도자·목공·판화·섬유·금속 공방이 모여 있다. 공방에서는 작품감상은 물론, 자신만의 예술작품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경험을 할 수 있고, 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면 예술아카데미를 신청하면 된다.

매년 10월에는 공원공락(公園共樂)이라는 테마로 공방아트페스티벌이 열린다. 금년에는 다섯 가지 즐거움(五樂)이라는 주제로 페스티벌이 열렸는데, 첫 번째 즐거움은 공방별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트벤치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보는 즐거움과 앉는 즐거움을 주었다. 두 번째 즐거움은 공방아트페어로 유명작가의 작품감상과 구입 그리고 작가와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세 번째 즐거움은 초크아트공모전으로 오일파스텔을 이용해 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시상과 전시를 했다. 네 번째는 공예품 무료체험이고, 다섯 번째는 예술아카데미 수강생들의 작품 전시회이다. 또한, 매주 토·일요일이면 야외무대와 잔디광장에서 무료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볼 수가 있다.

지난 9월에는 제3회 거리예술축제와 열린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고, 10월에는 가을소풍 음악회와 원아시아페스티벌 파크콘서트가 열렸다. 그 외에도 공원 곳곳에서는 정원박람회와 부산시민축제 등 여러 가지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쉼 없이 열렸다.

깊어가는 가을날 멀리 나갈 필요 없이 가족들과 부산시민공원을 찾아서 역사적 의미도 되새기고, 공연이나 전시회를 관람하는 것도 좋겠다.

글 _ 김상호 시민공원장

Special

Autumn Festival

부산시설공단과 함께한 가을축제

부산시민공원 열린콘서트

가을소풍음악회

아트공방페스티벌

정원박람회

원아시아페스티벌 플래시몹 이벤트

부산불꽃축제 & 광안대교

푸른 잔디밭,
피크닉처럼 즐긴 ~

부산시민공원 열린콘서트
& 가을소풍음악회

열린콘서트



시원한 가을바람과 함께 푸른 잔디밭에서 개최된 시민
공원 열린콘서트에 참석한 시민들은 공연을 즐기면서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만끽했다.

지난 9월 23일 하야리아 잔디광장 특설무대에서 열린
'부산시민공원 열린콘서트'는 불타는 청춘의 원조 댄싱퀸
김완선, 포크 싱어송라이터 장필순, 9인조 자메이카 스카(Ska)
음악 밴드 킹스턴루디스카, 트로트 가수 진성과 유지나, 프랑
스유학파 싱어송라이터 스텔라 장, 훈남 트로트 듀오 후니
용이 등이 출연하여 신명나고 흥겨운 무대를 선사했다.

가을소풍 음악회



또한, 뜨거운 시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부산시설공단은
10월 14일 가족, 친구, 연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가을소풍음악회'를 개최했
다. 특히 이번 가을소풍음악회는 시민들의 사전예약
제로 추진했는데, 신청자가 너무 많이 넘쳐서 공연 장
소를 뽕리로 야외무대에서 하야리아 잔디광장 특설무대
로 옮겨 진행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특별 게스트들을 초청한 가을소풍
음악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푸른 잔디밭 위에 가족들과 함께 돛
자리를 깔고 앉아 편안한 자세로 즐거운 가을밤 콘서트를 즐겼다.

글 _ 심창신 시민공원관리팀



부산시설공단과 함께한 가을축제



공원공락 (公園共樂) 제4회 공방아트페스티벌

공단은 지난 10월 13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 시민공원 문화예술촌 일원에서 「공원공락- 소통의 공간」을 테마로 부산 시민들과 문화를 공유하는 '제4회 공방아트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공방아트페스티벌에서는 공원 내 입주 해 있는 금속, 도자, 목공예, 섬유, 판화 등 5개의 공방 작가들과 아트페어 참여작가 115명이 함께 협업으로 완성된 작품을 선보였으며, 시민들이 자유롭게 감상하고 구매할 수 있는 아트페어와 특별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들로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었다. 특히, 올해 페스티벌에서는 각 공방별로 독특한 예술감각을 가미한 아트벤치를 공원 곳곳에 설치해 눈길을 끌었다.

글 _ 김미영 시민공원관리팀



그림같은 풍경 가득, 2017 부산정원박람회

감천문화마을 · 송도 케이블카가 정원 속으로 들어왔다!

시민공원 곳곳에서 열린 '2017 부산정원박람회'는 기획존, 전시존, 체험존, 공모전 · 경진대회, 학술행사 등으로 나눠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간 이어졌다. 총 관람객은 하루 평균 3만여 명으로 어림잡아 18만여 명. 정원박람회를 감상하는 시민들은 모두가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들고 저마다 사진촬영을 하며 아름다운 꽃과 다채로운 정원 양식에 빠져들었다.

2017 원아시아 플래시몹, 대동(大同)을 탐하다!

‘Radi-Mob GO!’

2017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이 지난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부산시민공원을 비롯한 사직동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영화의 전당 등 부산 곳곳에서 다채롭게 열렸다.

이에 앞서 부산 대중문화의 관광상품화 기반 마련을 위한 ‘메이드 인 부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원아시아 플래시몹, 대동(大同)을 탐하다’가 10월 23일 시민공원 하야리아 잔디광장 일원에서 열렸다. ‘다양한 색깔, 하나의 아시아’를 주제로 부산지역 예술가, 부산시민, 외국인 등 1,40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임무 놀이를 통한 아시아의 동물과 지도자, 음식 찾기, 대규모의 시민들이 띠를 형성하는 기차놀이, 대동춤 플래시몹, ONE ASIA 글자 표현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져 즐거움을 더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부산의 예술가 및 서포터즈와 시민들이 함께 부산영어방송을 들으면서 진행자의 미션 지시에 따라 시민공원 곳곳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놀이로 진행된 신명나는 시민참여 축제였다.

특히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시민공원 곳곳에 흩어져 미션을 수행 중이던 시민들이 진행자의 미션에 따라 ‘척척폭폭 기차놀이’를 통해 중앙잔디광장에 모여 함께 대동춤을 추고 ‘ONE ASIA’라는 대형 글자를 만드는 부산 최대 규모의 레디 몹 이벤트였다.

글 _ 김지훈 교량운영팀



Radi-Mob

이번 행사의 특징으로 꼽히는 레디-몹(Radi-Mob)은 ‘세계속 수다방 BEFM 부산영어방송(Be_fm90.5)’의 생방송(영어, 한국어)으로 참여자에게 행동과 지령이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라디오와 플래시몹(Flash Mob)의 합성어이다.



☆ 손바닥이 하늘 위를 보도록 올려~올려



가슴을 앞으로 귀엽게 앙증맞게~



한쪽팔을 위로 쭉~ 올려주세요~~ good!



양팔을 앞으로 내려주세요~~



☁ 양팔을 쭉~욱 펴고 활기차게~



다같이 해봐요~ 이렇게~

66

시민공원
푸른 잔디밭에서
시민들과 함께한
즐거움
레디몹이었습니다.



99

부산시설공단과 함께한 가을축제



깊어가는 가을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진 **제13회 부산불꽃축제**. 시민들은 8만 발의 폭죽 향연에 푸욱 빠졌다.

지난 10월 28일 광안대교를 무대로 화려하게 펼쳐진 불꽃축제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이라는 주제로 아델의 ‘HELLO’, 엘카의 ‘위풍당당 행진곡’, 손열음의 ‘라 캄파넬라’ 등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멋진 불꽃 세레나데가 연출되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광안대교를 절벽삼아 1km 이상 바다를 향해 펼쳐지는 ‘컬러 이과수’ ‘나이야가라’ 폭포 불꽃! 끊임없이 쏟아지는 폭포수 불꽃 하이라이트가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자 관람객들은 뜨거운 환호를 보냈다. 최초로 공개된 평창동계올림픽 불꽃과 캐릭터 불꽃도 매년 부산불꽃축제를 찾는 관객들에게 새로움을 선사했다.

글 _ **홍광호** 고객홍보팀 / 사진_ **차유진** 포토그래퍼



부산시설공단과 함께한 가을축제



어린이대공원

편백나무숲

‘아름다운 숲 공존상’

숲 속 깊숙이 맑고
청정한 수원지를 품고 있는
편백나무숲은 인근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농도의 피톤치드를 내뿜는
오랜세월 치유의 공간으로,
부산시민의 사랑을 받아왔다.

부산어린이대공원에 있는 성지곡 삼림욕장 편백나무숲이 지난 3일 서울 문학의 집에서 열린 ‘제17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시상식에서 ‘아름다운 숲 공존상’을 수상했다.

공존상은 부산어린이대공원 편백나무숲 외에 강원 강릉고 솔숲, 경북 성주군 성박숲, 전남 순천고 녹나무 숲 등이 받았다. 생명상은 제주 서귀포시 치유의 숲, 누리상은 전남 고흥군 애도 마을 숲이 받았다. 이번 대회에는 부산어린이대공원을 비

롯해 전국 총 110개소가 신청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및 온라인 시민투표 등을 통해 9개소가 최종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된 어린이대공원은 숲 속 깊숙이 맑고 청정한 수원지를 품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약 10ha 규모의 울창한 편백나무림이 조성돼 있다. 특히 편백나무숲은 인근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농도의 피톤치드(94.5mg/m³)를 내뿜는 치유의 공간으로, 부산시민의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 심사에서 부산어린이대공원은 생태·역사·문화·경관적 숲의 가치, 지역기여도 및 활용 콘텐츠 등 산림서비스, 관리주체의 노력과 체계 등 생명과 생태계 보호를 중점적으로 해온 숲 관리능력을 높이 인정받았다.

부산시설공단 김영수 이사장은 “이번 수상으로 어린이대공원 산림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산림청과 (사)생명의숲, 유한킴벌리가 주최하는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숲을 선정해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숲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한 상이다.

글 _ 김윤주 공원기획팀



부산시민과 함께 성장해 온 부산 지하도상가

무더운 여름 내리쬐는 햇볕을 피해, 때론 매섭게 몰아치는 한겨울의 칼바람을 피해, 그리고 차로 꽉 막힌 거리를 피해 지하로 내려오면 지상과는 또다른 느낌의 거리가 펼쳐지고 계절따라 유행따라 다양한 옷과 악세사리들이 손님을 맞이하는 부산의 지하도상가를 소개합니다.

글_김나훤 상가기획팀

부산시설공단 지하도상가 수 6개



부산 최초의 지하도상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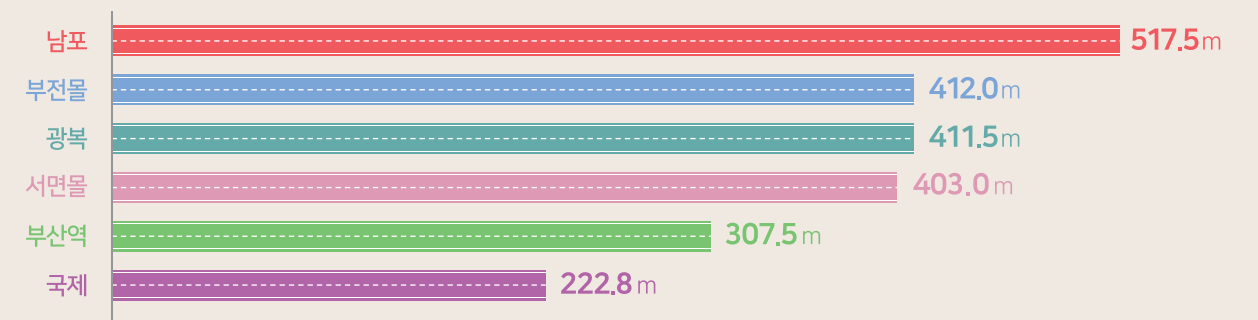
1981. 11월 개장하여 국제시장 아래에서 37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국제지하도상가

2,000명의 시민이 만든 국제지하도상가 출입구 벽화 2016년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2,000명의 부산 시민이 함께 도자기에 각자의 꿈과 희망을 담아 만든 도자기 타일로 벽화를 조성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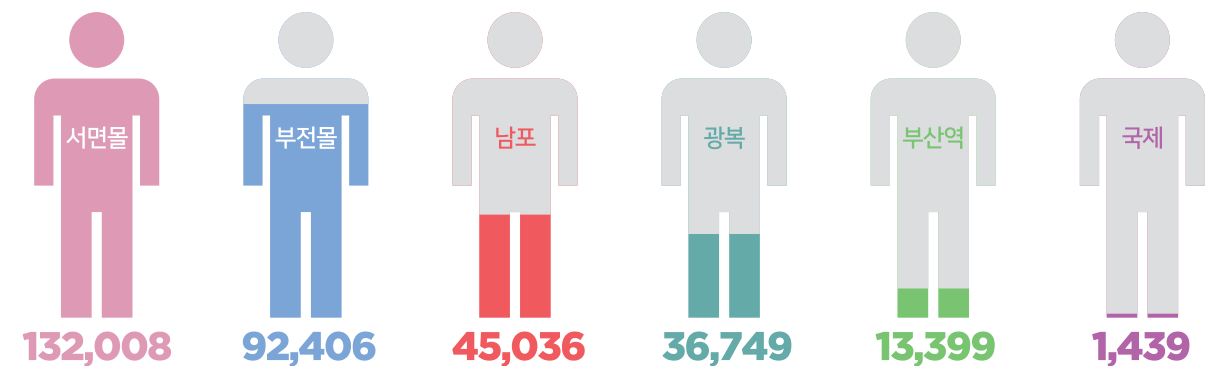
총 길이

2,274.3m



하루 유동 인구

321,037명



판매품목



총 점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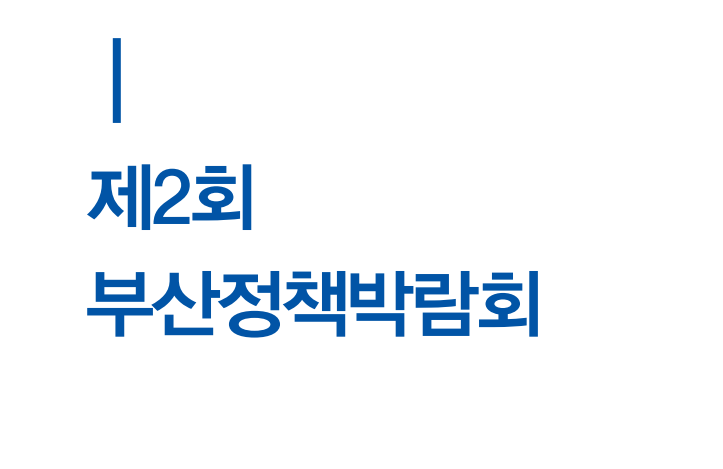
1,400개





Culture

포커스 인 부산 _
제2회 정책박람회



지난 9월 23일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제2회 부산정책박람회'가 열렸다. 부산정책박람회는 시민의 정책 아이디어를 현장에서 듣고 토론하고 상담하는 새로운 형태의 박람회로 민선 6기 시민 중심의 소통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직접 상담하고, 부산시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97개 정책 부스가 운영됐다. 우리 공단의 정책부스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공원 인기투표, 정책소망나무, QR 코드 숨은그림찾기 이벤트와 다채로운 체험행사를 펼쳤다.

특히 공단 캐릭터 꼬미 꾸미의 탈인형을 쓴 직원들의 퍼포먼스가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 많은 시민들이 꼬미꾸미와 함께 다양한 포즈의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했다.

글 _ 이수은 주차관리팀



SNS로 보는 부산시설공단

부산의 핫한 소식을 알고 싶다면
부산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SNS에 빠져보세요.
다채로운 행사와 각종 캠페인 등
즐겁고 행복한 소식들이 가득합니다.

글 _ 권진호 고객홍보팀

Instagram instagram.com/bisco_ig



facebook www.facebook.com/bisco.pr



NAVER blog blog.naver.com/i_bisco



twitter twitter.com/bisco_tw



KakaoStory story.kakao.com/ch/bis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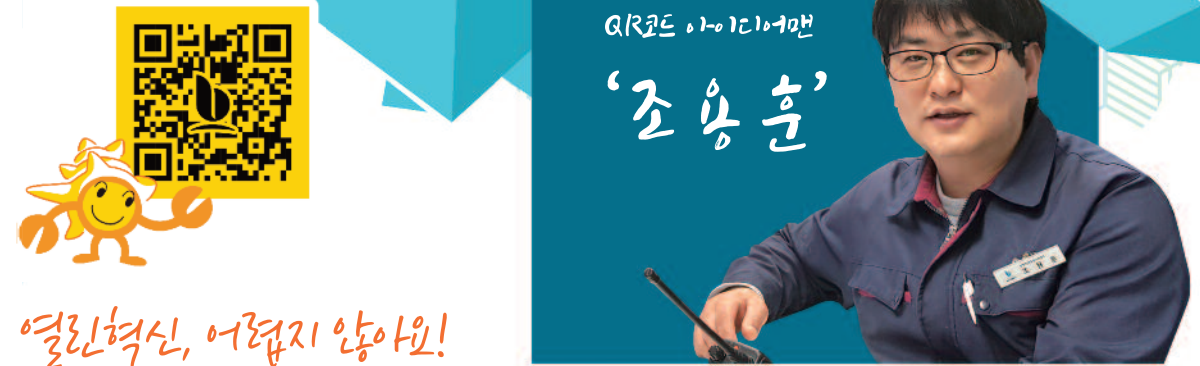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하이패스, 교통카드, 현금)

50%
평일 : 7~9시, 19~20시

평상 시간대
경차 500원 | 소형 1,000원 | 대형 1,500원

출퇴근 시간대
경차 500원 | 소형 500원 | 대형 800원

※ 경차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50% 감면으로 추가 감면 불가



2017년 감사원 감사 모범사례 지하도상가 QR코드 활용시스템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창조는 모방의 어머니다.

다소 식상하지만, 직장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노력과 시행착오 끝에 내린 '혁신과 변화'에 대한 나의 결론이다. 얼핏 보면 서류에 묻혀 조용조용히 흘러가고자 하는 무사안일한 사고방식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평화롭게 수면 위를 유영하는 오리가 실상은 실재 없이 물 속에서 물갈퀴를 휘젓고 있듯이 보이지 않는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었다.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이전 방식들을 한번 더 검토해보고 그 바탕 위에서 좀 더 나은 무엇인가를 더하고 보태는 것, 모방이되 단순한 모방을 넘어서서 높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창조의 다른 이름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이번에 모범사례로 선정된 「QR코드를 활용한 지식 정보 전달 시스템」은 정말 단순한 생각에서 출발했다. 매번 반복적으로 전달 해주거나, 직접 매뉴얼을 찾아봐야 하는 각종 기계설비의 운영 매뉴얼을 쉽게 동영상으로 찍어서 QR코드로 만들어 붙여놓으면, 언제나 누구든지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사실 QR코드가 나온지 10년이 다되어간다. 전혀 새롭거나 혁신적인 방식이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전달과 홍보방안으로 잘만 적용한다면 아주 유용한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내부적으로는 인사 이동 이후 업무인계를 위한 기술적인 전달 내용이나 신규 직원들의 교육에까지 활용 방안은 아주 많았다. 무엇보다도 우리 직원들과 함께 QR코드 동영상을 찍는 동안 이 영상을 보면서 기계를 조작할 동료들, 후배들을 미리 상상하면서 즐거워했던 기억이 가장 가슴 따뜻하고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다. 오늘 내게 혁신이란, 내가 맡은 일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동료애의 다른 이름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글 _ 조용훈 남부지하도상가사업소



부산시설공단, 국제친선 핸드볼대회 '준우승'

“부산을 핸드볼 메카로 만들기 위한 노력 계속 이어갈 것”

부산지역 유일의 여자핸드볼팀을 운영 중인 공단은 해외 5개국 우수팀을 초청, 지난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사직실 내체육관에서 『부산 국제친선 여자클럽 핸드볼대회』를 개최했다.

참가 외국팀은 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을 비롯해 미국국가대표팀, 호주국가대표팀, 대만국가대표팀, 헝가리 에르드팀(ÉRD), 덴마크 올보르그팀(Aalborg)으로, 이번 대회에서는 헝가리팀이 우승을, 한국팀이 4승 1패로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했다.

강재원 감독은 “이번 대회의 모든 경기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되어 부산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며 앞으로 부산을 핸드볼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부산의 세계화 홍보와 부산시민의 핸드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국가 간 실업팀 운영에 따른 정보교류 및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목적으로 부산시설공단 주최로 개최했다. 작년 첫 대회에는 스위스, 중국, 일본 3개국을 초청해 개최하였으며 올해는 6개국 대회로 규모가 확대되었다.

현재 국제대회 규정 상 참가팀이 8개 이상이어야 국제대회로 인정되기 때문에 아직 부산 국제친선 여자핸드볼대회를 공식 국제대회로 볼 수는 없지만, 내년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팀들이 많아 머지않아 공식 국제대회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대회에 참가한 헝가리와 미국, 덴마크팀은 2020년 도쿄올림픽의 전지훈련 및 베이스캠프를 도시 환경도 좋고 예산도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혀 부산의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글 _ 심기민 총무인사팀



2017 BUSAN INTERNATIONAL
FRIENDLY WOMEN'S CLUB
HANDBALL TOURNAMENT



※ 대회 성적
1위 헝가리 ERD
2위 부산 비스코
3위 덴마크 Aalborg
4위 미국 대표팀
5위 대만 대표팀
6위 호주 대표팀

테마의 창 _ 2017 전국체전 핸드볼경기



2017 전국체전, 값진 '은메달'

스텝 바이 스텝, 해마다 지속적인 기량 상승 눈길

제98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높은 기량을 선보인 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은 치열한 승부 끝에 값진 은메달을 추가했다.

핸드볼 여자일반부 경기에서 부산시설공단은 청주대 석우문화체육관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서울시청에 19-22로 아쉽게 패했다. 2017 SK 핸드볼코리아리그 준우승팀인 서울시청을 상대한 시설공단은 이날 부상에 올랐다. 전반 중반 피벗 이은비가 부상으로 실려나가 공격력이 약해진 탓에 7-11로 전반을 마쳤다. 후반 초반에는 라이트 박준희까지 무릎부상으로 병원에 실려가 어려운 경기를 펼쳤다.

2011년 전국체전 정상을 차지했던 부산시설공단은 지난해 동메달에 이어 2년 연속 메달권 진입에 성공하며, 내년에는 기필코 금메달을 획득할 것을 다짐했다.



열린혁신...현장에 답이 있다!

안전 매뉴얼 QR코드로 안전 사회 만들 것

지난 4월 취임한 부산시설공단 김영수(60) 이사장이 취임 6개월째를 맞았다. 부산의 랜드마크인 광안대교 · 부산시민공원 · 자갈치시장 · 영락공원 · 태종대를 비롯해 26개 도시 인프라를 관리하다 보니 신경 써야 할 게 많다. 매주 한 번 주요 사업장으로 출근하며 임직원들과 피드백을 하는 이유다. 김 이사장을 만나 그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다짐을 들었다.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시설 관리만큼 중요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김 이사장은 인터뷰 내내 ‘만족’을 강조했다. 단순히 시설을 관리 ·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용 주체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시설공단 김영수 이사장

- 광안대교 야간 경관조명 활용
- 사랑의 메신저 러브레터 도입
- 영락공원 부부전용 봉안함 등
- 시민 만족감 높여 큰 ‘호응’
- 행안부 경영평가 최우수 선정

비근한 예는 많다. 지난 5월에는 부산의 대표 상징물인 광안대교가 대형 메신저가 됐다. 야간 경관조명을 활용해 사랑의 메시지를 띄워주는 ‘사랑의 메신저 러브레터’를 도입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한여름 밤 청춘메시지’를 진행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그늘이 부족한 부산시민공원에는 잔디광장 외곽을 따라 파라솔 100개를 설치했다. 뜨거운 햇볕을 피할 공간이 생기면서 찾는 이도 늘었다. 내년에는 느티나무 100그루를 심을 계획이다.

영락공원에는 친환경 고효율 화장기법을 도입했다. 무엇보다 공설 장사시설로는 처음으로 부부전용 봉안함을 개발해 같은 공간에 2기의 유골을 모실 수 있도록 해 호응을 얻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간 업체의 불법 주정차 견인 방식에 대해서도 수익에 덜 민감한 시설공단이 맡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이사장은 “도시 인프라는 조금만 관리가 소홀해도 금방 티가 난다. 만족도를 높이려면 부산시민의 목소리를 부지런히 행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과도 좋다. 부산시설공단은 지난 7월 3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7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2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경영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다. 감사원은 최근 재난안전 매뉴얼을 QR코드로 만들어 현장에 비치한 점을 높이 평가해 모범사례로 선정했다. 김 이사장은 “재난은 초기 대처가 미흡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누구나 효율적으로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QR코드는 안전 매뉴얼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심폐소생술이나 지진대피요령이 담긴 QR코드도 제작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설공단은 부산에서 유일하게 실업 여자핸드볼팀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8월 총 6개국이 참가한 ‘부산 국제친선 여자클럽 핸드볼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김 이사는 “이번에 한국을 찾은 나라들이 내년 도쿄 올림픽과 2019년 일본에서 열리는 핸드볼 세계선수권 대회의 전지훈련지로 부산을 정하겠다고 할 정도”라고 소개했다. “부산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과 부가가치 높은 프로그램 제공이 우선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부산시설공단 김영수 이사장은 “도시 인프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부지런히 부산 시민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8년간 부산시의원(해운대구3)을 역임하고 2015년부터 2년간 부산시설공단 경영본부장으로 일하다가 지난 4월 이사장에 취임했다. / 이준영 기자

부산시설공단 경영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2017 지방공기업평가, '1위' 달성



부산시설공단은 지난 7월 31일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2017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행정자치부가 전국 343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경영평가(특광역시 시설공단 분야)에서 '가'등급을 받아 최우수 공단에 선정되는 영예를 받은 것이다. 이번 경영평가는 공단의 경영방침인 안전·성과·책임경영 실천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공단은 지난 1년간 '지속적인 시민소통, 시민 맞춤형 서비스'와 함께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전년도 3위에서 무려 2계단을 뛰어넘어 1위로 도약해 눈길을 끌고 있다.

올해 경영평가 결과, 전 사업장의 안전사고 감소(13.33%), 영락공원 친환경 고속화장로 추가설치로 화장 효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점, 영락공원 장사문화 및 화장기술 해외교류사업 추진과 시민공원 범죄예방환경설계 셉테드(CPTED) 시설인증 획득, 광안대교 다차로 전자지

불 스마트톨링시스템 구축, 무인항공장치(드론) 및 GPS 장비 활용 공원·유원지 관리 강화 등이 가장 눈에 띄는 성과로 꼽힌다.

또한 시민소통 강화를 위한 고객의 소리 시스템 개편과 CS 제도개선 등 시민서비스 향상, 찾아가는 청렴순회교육, 청렴옴부즈만 현장자문,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간부직원 인사드래프트제 시행,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 운영,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 전개가 꾸준하고 내실있는 경영성과 창출로 이어진 점이 호평을 받았다. 이와 함께 공공구매촉진대회 국무총리 표창(중소기업청), 정부3.0 추진실적 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행정자치부), 안전보건활동 서비스분야 최우수상 수상(안전보건공단), 2016년 지방공기업의 날 경영개선 우수기관 국무총리 표창(행정자치부), 녹색도시 우수사례 최우수기관 선정(산림청), 2016년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조사 2년 연속 1위 달성(행정자치부) 등 경영성과 전반에 걸쳐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영수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성과는 전 직원의 열정적인 노력과 부산시민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의 결과이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시민으로부터 배우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공단이 되어 '공공시설의 가치 창출과 서비스 향상'을 통한 도시발전 및 시민 복리 증진에 최선의 노력으로 보답하겠다."라며 각오를 밝혔다.

안전한 도로 교통문화 만든다 부산시설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4곳 업무협약



공단은 지난 11월 2일 공단청사 회의실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전국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연합회 공제조합과 안전한 도로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참여 기관들은 ▷찾은 사고 발생 구간 정보 공유 및 전파를 통한 사고율 경감 ▷대형 교통사고 사전 예방 교육 등을 통한 인적 물적 피해 최소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이용자 맞춤형 교통사고 예방 대책 수립 등에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시설공단 김영수 이사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도로교통 관련 기관들이 협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문화가정 초청 공원·유원지 투어 부산시설공단은 시민들과 함께 합니다.



유원지, 용두산공원 등을 소개하고자 투어행사를 추진했다. 중앙공원사업소에서 준비한 이번 투어 행사는 베트남 외 8개국 다문화가정 80여 명을 초청해 태종대유원지 탐방, 다누비열차 탑승, 국립해양박물관 관람, 용두산공원 주요시설 체험 등 다양한 코스로 투어를 실시해 참가자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Clean BISCO 공모전, UCC '귀신잡는 비스코' 등 8개 작품 선정

공단이 전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펼친 청렴공모전에 흥미로운 콘텐츠들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함께하는 청렴한 공단'을 주제로 한 Clean BISCO 공모전은 올해로 4회째, 부산시설공단은 전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UCC, 포스터, 표어, 사진 등 4개 분야를 공모했고, 27개 부서에서 401명이 참여하여 총 540점의 작품이 출품됐다.

3단계의 심사를 통해 UCC 6작품, 포스터 1작품, 표어 1작품 등 총 8개 작품이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장사관리팀의 건축5급 임춘호 과장 외 7명이 출품한 UCC '귀신잡는 비스코'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교량시설팀 토목4급 김동석 차장 외 7명이 출품한 UCC '청렴은 작은 것부터'와 장사운영팀 장례5급 박경수 과장 외 20명이 출품한 UCC '청렴 인터뷰', 장사운영팀 장례5급 허수봉 과장 가족의 UCC '우리가족의 청렴이야기'가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반전시킨 경제지표 퍼져라! 부산의 일자리

새롭게
문화로
부산



경제성장률 개선 ('13년 1.8% ⇒ '17년 3.0%전망) / 국책사업 10건 3,065억원 유치 / 우수기업 86개사 유치 (1조 6,577억원, 일자리 12,417명) / 청년 고용률 증가 ('14년 2Q 38.4% ⇒ '17년 2Q 42.5%) / 청년 일자리 복합문화공간 '청년두드림센터' 조성 / 부산청년희망자금 2000사업 (근로자부담 10%) / 청년해외취업 거점센터 '부산 K-move센터' 개소 /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골목 상권 스마일 프로젝트' 실행 / 'TNT2030 플랜' 출범 / 세계최고 기후물리 기초과학연구원(IBS) 연구단 유치 / 미음R&D단지내 부산 첫 산학융합지구 조성 / 부산연합기술지주 23개사 출자 / 창업자금 16개 펀드 2,871억원 유치 / 부산형 창업생태계 조성 / CENTAP 개소

부산에만 있는 행복한 이야기, 다복동

새롭게
문화로
부산



신청하면 심사만하던 사회복지에서, 공무원이 발굴하는 현장 행정으로 ~ 신청하는 서비스만 제공하던 행정에서, 종합 지원 발굴하는 적극 행정으로 ~ 공공서비스만 제공하는 행정에서, 민간자원도 활용하는 시민중심 행정으로 ~ 192개동 다복동 사업 시행 / 복지사각지대 발굴 건수 4배 증가 / 방문상담 건수 4배 증가 / 통합사례관리 건수 2.8배 증가 / 서비스연계 건수 2.4배 증가

시민의 발걸음마다 행복을 창출하는

부산시설공단 관리시설 MAP



- 공원시설
- 교통시설
- 장사시설
- 상가시설
- 체육시설

세상을 바꾸는 열린혁신
BISCO come ture "Social value" 공감과 소통으로



같이 만들어 가는
가치있는 세상

공익신고



- | | |
|--|--|
| <p>보호 • 비밀보장, 신분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p> <p>보상 •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 지급
• 공익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
• 구조금(치료비, 이사비, 소송비용 등) 지원</p> | <p>상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p> <p>신고 • 홈페이지 1398.acrc.go.kr
• 부패 · 공익신고 앱
• 우편(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p> |
|--|--|

신고대상 : 5개 분야, 279개 법률 위반행위

건강
불량식품제조 · 판매
무면허 의료행위

안전
부실시공
소방시설 미설치

환경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 매립

소비자 이익
개인정보 무단 유출
허위 · 과장광고

공정경쟁
기업 간 담합
불법 산업기술 유출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평창.정선.강릉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2.9 - 2.25

|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3.9 - 3.18



수호랑
Soohorang



반다비
Bandabi

Passion.Connected.
하나된 열정

Dynamic
BUSAN



1937
PARIS



2030
BUSAN
WORLD EXPO



1851
LONDON

세계 최대규모의 —
역사적인 엑스포가
2030년 부산에서
— 시작됩니다

BUSAN WORLD EXPO 2030